

사사가와 나가레

사사가와 나가레는 무라카미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11km에 이르는 해안선으로,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인기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맑은 물과 백사장은 거친 자연의 아름다움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계류와 개울이 흐르는 수많은 만과 입구, 바다에서 솟아오른 깎아지른 절벽, 파도에 의해 형성된 뾰족한 바위가 어우러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많은 곳에서 지표면은 끊임없는 바닷바람에 의해 기묘한 모양으로 구부러져 쪼그라든 소나무와 덩굴로 덮여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345번 국도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 운전하는 것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바다가 비교적 잔잔한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9회 출발하는 구와가와 항구에서 40분간 관광 유람선을 타는 것입니다. (강풍으로 결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잦은 폭풍과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만은 때때로 바다 거품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플랑크톤이나 녹조류 같은 고농도의 유기물을 함유한 차가운 바닷물이 바위에 격렬하게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식재료 측면에서 사사가와 나가레는 해안을 따라 잘 자라는 바위굴로 유명합니다. 겨울과 봄에 굴은 개울에서 바다로 방출되는 영양분이 풍부한 물을 먹으며 통통하게 자랍니다. 또 다른 지역 특산품은 작은 공장에서 바닷물을 끓여 만든 천연 소금입니다. 해안에 있는 소금 공방에서 전통적인 제조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